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Facing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김지태 / 대한건축사협회 전임회장

by Kim, Ji - Tae

실로 12년만에 160개국이 참가한 동서화합의 인류 최대제전인 '88서울 '88서울올림픽을 순조롭게 치러냈다. 우리의 능력과 저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알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을 만방에 보여주었다. 이제 무사히 올림픽을 끝낸 우리로서는 성숙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알차게 성인다운 국가로서의 길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 큰 잔치를 치뤘던 무드속에 국내외 건축사들의 깊은 관심사인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ACA-3)”를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최하에 서울에서 개최함에 따라 협회는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고 많은 것으로 안다. 협회 창립 이래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를 주관할 만큼 성장, 발전된 것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과 조형장작 분야의 건축계로 보아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흘러간 시공속에 1984년 10월 제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한국을 대표하여 참관차 다녀온 나로서는 더욱 감회가 새로운 바 있다. 그 당시에는 정식 회원국이 아니므로 참관에 그치던 우리나라가 이제 정식 회원국이 되어 (85. 11. 가입) 국제교류의 문호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껍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아시아건축사협회 (ARCASIA)”가 지역적인 특수성때문에 범세계적인 건축관련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에는 못미치지만 세계건축가연맹 (U. I. A)의 후원을 받고 있는 동남아국가 (회원국 : 13개국) 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것이다. 그간 우리 건축사협회를 통하여 소개된 바 있지만 ARCASIA의 창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7년 환경설계전문회의 (인도-뉴델리)에서 기구창립이 거론된바 있으며 그후 1980년에 태국-방콕회의의 결의에 따라 정식으로 발족하여 18년이란 연륜을 쌓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설립목적의 첫항에서 밝혔듯이

아시아지역 각국가의 건축사협회를 통한 단합과 우의증진, 기술증진, 건축예술 문화창달, 건축교육 및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제각기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 회원국은 자기들의 전문적 기술을 통하여, 혹은 자기나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문가적 관심사나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건축사의 정확한 문제점들은 물론 공동 관심사에 대한 해답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회원국들은 공동 사명감을 갖고 건축사의 권익을 위하여 교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를 앞둔 오늘에 있어 아직도 우리의 일부 회원들은 ARCASIA란 무엇하는 기구이며, 이 기구의 역할과 활동상, 회원국으로서의 이해득실 관계 및 기타 여러가지로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안다. 물론 이에 대한 협회로서의 홍보매체가 미흡한 관계도 있겠지만 그동안 협회지를 통하여 회의의 및 이 기구에 관련된 기사를 6회에 걸쳐 소개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이해되리라 본다. 나아가서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서 가입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에 따른 회의내용도 알게되리라 본다.

(84. 11월호, 86. 6, 11월호, 88. 1, 2, 7월호 등) 흘러간 세월속에 성년이 다 되어오는 80년도까지만 해도 협회차원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사피 했으나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시대적 조류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협회는 82년말 국제교류에 따른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지역적인 관계를 감안하여 우선 동남아 6개국 (대만,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우리 협회와 유사한 건축단체의 문호를 노크한 것이 교류의 효시라 하겠다. 교류가 없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협회는 외국 물정에 어두웠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만나 본 그들 역시 한국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란

고작 피상적인 것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서 오류를 낳게 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국제교류의 당위성을 실감케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ARCASIA를 통하여 회원국 건축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단결과 유대를 갖고 긴밀한 활동을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회원국이 된 이상 국위선양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더불어 우리나라 건축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도 협회든 개인이든 건축분야에 관련된 국제적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기술 지식과 전문을 쌓아 결코 낙후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금번 우리 협회가 주관하는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대하여 협회 실정으로 미루어 조급하고도 무리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회원들이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ARCASIA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상 민간의교를 겸한 국가적인 차원과 우리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이 대회가 잘 치루어지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회에 대한 공과 노력은 훗날 평가받기로 하고 손님맞이할 준비에 우리모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 ACA - 1 한국대표단. 중앙에 金枝泰前會長